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수 양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봉 환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김 수 양

김수양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최 병 선 (인)

부 위 원 장 엄 석 진 (인)

위 원 김 봉 환 (인)

국문초록

국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연구는 대부분 외국인 범죄의 현황 및 정책 서술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외국인 범죄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그 중 인종과 지역에 초점을 맞춰 지역 간의 범죄율의 차이를 규명한 대표적인 학파로는 시카고학파가 있다. 이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비주류인종 혹은 민족이 저지르는 범죄의 원인으로 거주지 분리에 주목하였다. 거주지 분리는 집단 간의 거주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 집단이 고립되어 거주할수록 그 집단의 거주지 분리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는 한 집단의 특정 거주지 선호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 내 존재하는 제도적 차별 및 주류집단의 배타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간적 차별은 수직적 계층이동을 제약하는 계층적 차별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간과 계층에 있어 이중적 차별은 차별받는 집단의 긴장상태를 고조시켜 범죄를 유발한다. 특히, 주류집단과 고립되어 거주할수록 불평등성의 집중으로 인해 비주류집단의 범죄율은 증가하게 된다. 시카고학파는 이러한 입장에 기인하여 흑인들의 거주지 분리와 흑인의 범죄율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점차 라틴,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에 주목하여 비(非)백인들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집단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는 시카고학파의 분석방법을 국내 상황에 차용하여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 시카고학파의 이론을 차용한 해외연구 및 국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범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지수, 지역 빈곤율, 인구 이동을, 외국인의 규모, 외국인 청·장년층 남성 비중, 지역사회 범죄 빈도, 지역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심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토대로 08년부터 12년까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등록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거주지 분리가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분리된 집단의 사회적 유대감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것이므로 지역 내 동일한 체류유형을 지닌 외국인들의 비중변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외국인 범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동일한 유형의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론이 국내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 분리의 강제적인 완화정책은 오히려 내국인의 반감을 가져올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조절효과결과에 따라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시행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거주지 분리, 외국인 범죄율
학 번 : 2011-22122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1.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현황 개요	4
2. 연구대상 및 범위	6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8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8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9
3. 범죄사회학이론에 따른 범죄의 원인	10
제2절 거주지 분리의 개념 및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1. 거주지 분리의 개념	14
2. 외국인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5
1) 지역사회의 해체	15
2) 기존 거주민들의 배제	17
3)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시 인종 선호	17
제3절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8
1. 국내연구	18
2. 해외연구	21
제3장 연구설계	26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26
1. 연구의 분석틀	26
2. 연구가설	27
1)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관계	27
2) 체류유형별 비중에 따른 조절효과	28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의 수집	30

1. 종속변수 : 외국인 5대 범죄율	30
2. 독립변수 :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31
3. 조절변수 : 체류자격유형별 등록 외국인	33
4. 통제변수	34
제3절 연구 모형	40
1. 선형회귀모형 방정식	40
2. 분석방법	40
제4장 분석결과	42
제1절 기술통계분석	42
제2절 이분산성을 고려한 선형회귀분석결과	46
1. 분석절차	46
2. 독립변수의 효과	48
3. 조절변수의 주효과	48
4.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48
5. 통제변수의 효과	50
제3절 종합 및 분석	51
제5장 결론	59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59
제2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2
[부록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70
[부록 2] 회귀분석결과	71

표 목차

<표 1-1>	국내 등록외국인 현황	4
<표 1-2>	국내 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5
<표 1-3>	국내 등록외국인 중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 추이 ...	7
<표 3-1>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분류 기준	33
<표 3-2>	변수 정리	39
<표 4-1>	외국인 범죄율의 기술통계량	42
<표 4-2>	외국인 범죄율의 분포적 특성	43
<표 4-3>	거주지 분리의 기술통계량	43
<표 4-4>	거주지 분리의 분포적 특성	44
<표 4-5>	체류유형별 외국인 비율의 기술통계량	45
<표 4-6>	기타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46
<표 4-7>	기타 변수의 분포적 특징	46
<표 4-8>	GLS(hetero) 분석 결과	47
<표 4-9>	외국인 거주지 분리 5개년 평균 상·하위 10개 시군구	51
<표 4-10>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급여 수준	54
<표 4-11>	체류유형별 범죄자수 및 범죄율	56

그림 목차

<그림 1-1>	수도권 내 등록외국인 현황	6
<그림 3-1>	연구분석틀	2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현재 약 146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단일민족으로 이뤄진 사회에서 다양성과 세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나, 한편으론 사회 내 이질성을 가중시켜 내국인의 불안감을 부추긴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인이 한국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시킨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본부의 통계와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01년 566,835명에서 2012년 1,445,103명으로 154.94%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은 2001년 4,328명에서 2012년 22,914명으로 동일 기간 동안 429.44% 증가함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보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가 현저히 앞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영신, 강석진, 2012; 경찰청, 2012a). 특히, 외국인 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 3년간 총 21,914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 수준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청, 2012a).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유입을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우리나라 치안의 확보와 동시에 외국인 범죄에 따른 인종차별 및 인종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 통제가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범죄의 예방 및 검거 활동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2-3회에 걸쳐 외국인 밀집지역¹⁾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순찰 활동 및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2012b).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근본적인 분석의 부재로 인해 해당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반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규모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것은 외국인 범죄 해결에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범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분석들을 살펴보다도 알 수 있다. 국가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0년대 급격한 이민자들의 유입을 겪어 왔던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이민자의 유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가 이들의 범죄율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전반적인 범죄율이 감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규, 신동준, 2011). 또한 특정 국가 내 도시를 기준으로 수행한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지역 사회 내 외국인 유입의 증가가 해당 지역 내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무관하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김정규, 신동준, 2011).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역 거주하는 외국인의 규모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수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다. 서울지방경찰청(20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용산구 내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이 12,062명이며, 동대문구는 12,425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로 인해 548명이, 동대문구에서는 153명이 검거되었다. 성동구와 중구의 경우에도 성동구는 7,264명, 중구에는 7,447명의 등록외국인이 거주하나, 성동구에서는

1) 경찰청에서는 지역 내 등록외국인 3,500명 이상 또는 2% 이상인 지역을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 외사국, 2011).

135명, 중구에서는 416명이 범죄로 인해 검거되었다. 즉, 지역 내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해당 지역 내 유입된 외국인의 규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외국인의 거주 규모 이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 범죄는 개인의 행위이나 사회 구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범죄 현상에 있어 공간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장소(location)일 뿐만 아니라, 사회해체라는 “지역적 맥락(context)”(박성훈, 김준호, 2012)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범죄율의 지역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할 시 외국인 범죄에 있어 공간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 외국인의 등록 비율이 높은 지역 중에서도 외국인이 내국인과 분리되어 그들만의 거주 공간 및 문화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안산시 원곡동 다문화 특구지역,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인천 차이나 타운 등과 같이 기존 내국인들이 해당 지역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국인들의 “초기 정박지(anchorage)”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잠재적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여 신규이민자들을 지역 내로 유인하게 된다 (이용근, 이현욱 2012). 이는 외국인들의 거주지와 내국인의 거주지가 분리되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 해체 및 사회 경제적 배제로 인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연구가 오래전부터 다인종국가로서 이민이 활성화된 해외 국가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사회 해체론 및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범죄율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 현황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에 따른 외국인 범죄율의 변화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단기간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보다는 장기간 거주를 통해 사회해체 또는 사회분화 현상의 경험, 국내 사회 규범 및 제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계층 간의 갈등,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이 이뤄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국내 등록외국인 현황

시	총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2001	267,630	67,908	15,497	14,478	16,959	3,595	5,645	4,760
2002	287,923	73,228	17,244	14,844	18,113	4,073	5,271	5,240
2003	437,014	102,882	19,823	15,267	31,084	4,921	6,482	6,059
2004	469,183	114,685	17,808	15,026	31,898	5,743	7,279	6,505
2005	485,477	129,660	19,547	14,530	31,683	6,361	7,897	7,457
2006	632,490	175,036	23,397	17,104	39,463	8,155	9,803	10,494
2007	765,429	229,072	27,662	19,409	45,464	10,016	12,177	12,804
2008	854,007	255,207	31,499	19,877	48,521	11,923	14,056	14,472
2009	870,636	255,749	31,310	19,406	47,852	12,188	14,485	14,961
2010	918,917	262,902	32,471	20,401	49,992	13,360	14,876	16,043
2011	982,461	279,220	35,116	22,014	50,217	14,106	15,047	18,421
2012	932,983	247,108	35,049	21,922	47,305	14,492	14,571	19,247
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1	67,540	4,497	7,998	9,951	7,469	4,744	17,893	17,621
2002	72,574	4,945	8,730	10,836	7,726	5,417	19,146	19,057
2003	154,787	6,297	10,923	17,329	8,437	6,692	21,291	23,173
2004	165,922	7,265	11,665	19,147	8,932	7,819	22,696	24,920
2005	155,942	7,989	12,871	19,849	10,165	9,260	23,409	26,679
2006	200,798	10,252	17,326	26,411	13,475	11,903	29,721	35,953

2007	234,030	11,994	20,731	30,553	16,151	15,126	33,721	42,389
2008	256,827	12,892	22,700	35,254	18,749	19,690	35,731	51,707
2009	266,808	12,672	22,648	37,667	19,919	21,149	35,350	53,222
2010	285,262	13,737	24,453	42,753	20,152	21,970	36,895	57,718
2011	302,447	13,332	25,730	48,091	21,851	23,797	39,984	65,960
2012	288,251	12,901	24,830	46,230	22,030	23,602	40,067	64,371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2)

1992년에는 65,673명에 불과하던 등록외국인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1,18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2003년부터는 40만명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 2012년 932,983명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표 1-2>에서 보듯 90일 이하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324,504명과 외국국적을 지닌 동포로 거소신고자 187,616명까지 포함하면 총 1,445,103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중 2012년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177,854명으로 불법체류율은 약 12.3%로 대부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이 중 64.56%가 등록외국인으로서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국내 합법체류자 및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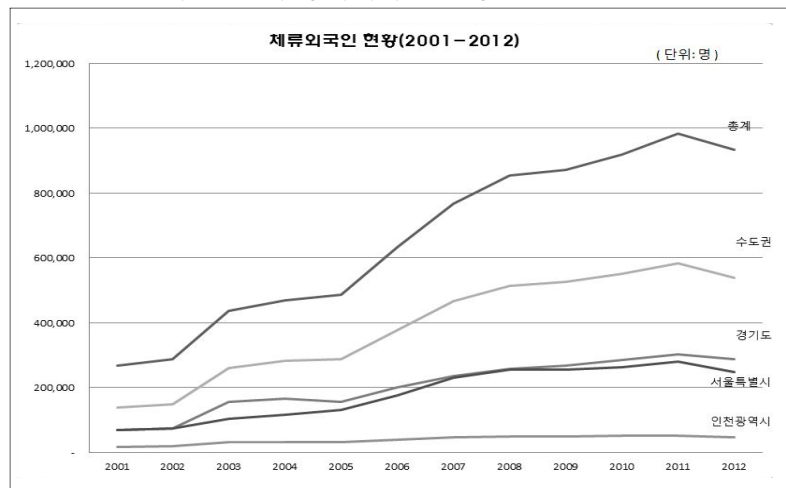
유형	총계		등록		단기		거소	
	합법	불법 (불체류)	합법	불법	합법	불법	합법	불법
2008	1,159	200 (17.3%)	8548	933	2633	107	41	0.5
2009	1,168	178 (15.2%)	871	84	248	94	50	0.6
2010	1,261	169 (13.4%)	919	79	259	89	84	0.7
2011	1,395	168 (12.0%)	982	83	278	84	135	0.6
2012	1,445	178 (12.3%)	933	93	325	84	188	1.6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2)

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표 1-1>을 토대로 도출한 <그림 1-2>와 <표 1-3>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5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약 60%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신규 입국 외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 거주지 분리가 이미 진행되어 가시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수도권 내 등록외국인 현황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²⁾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에서 작성한 시군구별 외국인등록인구로 2001년부터는 2012년 세종특별시를 제외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의 변경은 없다.

<표 1-3> 국내 등록외국인 중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중 추이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비중(%)	51.4	51.3	59.4	60.2	59.2	59.7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중(%)	60.0	60.2	60.3	59.9	59.4	57.6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2)

연구 범위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3년과 2006년 각각 전년도 대비 약 51.78%, 30.28%의 큰 증가율을 보인 것과는 달리 2008년에 들어서는 등록외국인이 연평균 2.24%씩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거주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여, 2008년도부터 2012년도 5개년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의 관찰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수도권 내 시군구에 대한 행정구역과 경찰서별 관할 구역의 상이점을 고려하여, 경찰청의 분류기준 및 경찰서의 관할 구역의 지번을 행정구역과 맞추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관찰대상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단 내 인구 규모가 1,000 명 이하인 경우, 독립변수인 상이지수가 과다 측정되는 왜곡이 발생되므로(박윤환, 2010) 외국인 규모가 1,000명 이하인 시군구는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외국인 범죄의 개념과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외국인 범죄의 개념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난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혹은 재외동포도 모두 포함된다.

범죄는 크게 형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법적 범죄와 사회에서 규정되는 사회적 범죄로 나뉜다. 법적 범죄는 특정 행위가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소에 해당되는지,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반해 사회적 범죄의 경우에는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행위규범을 위반하는지, 인권이나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사회가 범죄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이순래 외, 2010). 그러나 사회적 범죄는 지배층 혹은 사회 주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대별·사회별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법적 범죄에 한정하여 범죄를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국인 범죄를 유형화시키면 i)출입국 관련 범죄, ii) 국내 형법 등을 위반한 형사 범죄 iii)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인적·장소적으로 2개 국가 이상에 관련된 국제범죄로 나뉠 수 있다 (이상열,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형법 등을 위반한 형사범죄 중에서 주요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을 다루고자 한다. 해당 5대 범죄는 경찰청에서 매

년 발행하는 범죄통계기준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범죄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신체 구조 혹은 열등한 유전자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다는 생물학적 접근방법은 Lombrosso, Dugdale, Kretschmer 등에 의해 초기 범죄학의 발전을 이끌었다 (전대양, 2002). 현재 생물학적 접근방식은 범죄자들의 외형 상 공통점에 따른 결정론적 입장보다는 유전자 혹은 호르몬 등의 작용과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이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방법과는 달리, 사회적 특징에 의해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회학적 접근방법은 사회 내 계층, 문화, 환경, 제도, 사회화 과정 등에 따른 범죄율의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가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증(Visa)을 발급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사증 발급 시 신청일 이전 최소 6개월 내지 3개월 내 자국정부가 발급한 공식적인 범죄 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³⁾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a). 또한 대부분의 국내 입국 외국인들이 범죄를 주목적으로 입국한다기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입국하는 경향을 고려 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이 자국 내 규범에 대해 반사회적인 태도 혹은 국내 규범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동

3)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회화지도(E-2), 특정활동(E-7),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사증 발급 시 자국 내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해왔으며, 2012. 8.1.일부터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사증 발급 신청자에게도 요구하고 있다.

준, 2012). 즉, 각 개인의 범죄 선호 성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국인의 범죄가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유입 후 겪게 되는 사회학적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방법은 사회구조, 사회화 과정, 사회·문화 갈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원인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특정 사회적 계층 혹은 특정 지역에 있어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사회해체론,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범죄사회학이론에 따른 범죄의 원인

1) 사회해체이론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은 지역 간에 범죄 발생률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사회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최영인, 염건령, 2005). 사회해체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 Park와 Burgess는 도시생태학관점에서 도시의 분화에 대해 동심원이론(Concentric Zone Model Theory)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도시는 동심원을 따라 5개의 지역⁴⁾으로 분화되며, 이 때 급격한 사회해체로 인해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지역을 점이 지대로 보았다. 점이지대는 낮은 임대료와 집중된 교통으로 인해 새로운 이주자들이 급격히 유입되는 곳으로, 기존 거주민의 이탈로 인한 이질성 증가로 사회해체가 발생하게 된다 (Park, 1936; Park, Burgess, McKenzie, 1984).

4) 도시의 분화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중앙부터 상업중심지(Central business district zone), 점이지대(Transitional zone), 근로자지대(Working class zone), 주거지역(Middle class residential zone), 통근지역(Commuter zone) 순으로 분화된다.

사회해체는 높은 실업률과 빈곤률, 열악한 거주환경, 미혼모 혹은 한 부모 가정의 증가와 같은 가족 붕괴, 학업성취도 하락 등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가족, 학교, 소규모 공동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한 사회 통제력의 약화는 범죄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Siegel, 2008). 사회 통제력의 약화는 교육, 보건, 주택과 같은 기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이는 높은 인구이동률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역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쌓아 더 나은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탈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공동목표를 추구하거나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축소된다 (Kornhauser, 1978).

이러한 사회해체이론에 입각하여 지역 간 동일 계층의 범죄율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실증연구로는 Shaw와 Mckay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시카고 내 거주지 분화로 인해 나타난 점이지대 (transitional Community)에서 유럽 노동 이민자와 미국 남부 빈민 노동자층의 유입이 시카고 내 사회해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연구하였다 (Shaw & Mckay, 1942). 해당 점이지대는 지속적인 인구이동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사회 내 이질성이 증가하였고 기존의 사회적 규범의 통제 능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해체에 따른 사회 문제가 한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내 반사회적인 하위 문화를 형성하여, 새로운 세대에 전이되고 감염되어 해당 지역 내 비행적·범죄적 문화가 끊임없이 전이된다고 보았다 (Shaw & Mckay, 1942). 이로 인해 점이지대의 인구구성이 변화하더라도 해당 지역 내 높은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사회해체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 해체는 외국인이 유입된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과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켜 범죄율을 증가시키게 만든다.

2) 긴장이론

Durkheim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Suicide (1897)』에서 자살이나 범죄와 같은 사회병리현상은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의 변동에 의해 사회 내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인 아노미(Anomie)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동질성이 강한 기계적 사회에서 사회적 이질성이 높은 유기적 사회로 전환되는 전환기에는 전통적인 사회 규범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로 인한 아노미가 발생하여 사회의 연대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아노미가 사회병리현상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만중, 2002). 이후 Merton은 아노미로 인한 사회적 긴장에 대응하는 개인의 양태를 분석하여 사회 내 공통목표(“Culture Goals”)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Institutionalized Means”)사이에 괴리가 일탈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논의하였다 (Merton, 1938).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목표에 대해 동조하는지 여부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합법적인 수단의 접근가능성 여부에 따라 개인의 적응이 상이해지는데, 문화적 목표를 달성코자하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제한되는 경우, 개인은 불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Merton, 1938).

이처럼 개인의 행동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 규범,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거시적인 수준의 사회적 긴장에 대해 주목한 Durkheim과 Merton과는 달리, Agnew는 미시적인 개인의 긴장에 초점을 맞춰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Agnew(1992)는 부정적인 사회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긴장이 범죄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긴장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원인으로 Agnew는 목적과 수단 간 괴리에 따른 목표 달성의 실패, 상대적 불평등성에 따른 불만족, 긍정적 자극의 제거, 부정적 자극의 강화를 꼽는다 (Agnew, 1992). 첫 번째는 Merton이 언급한 것과 같이 달성코자 하는 긍정적 가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경

우를 말한다. 두 번째는 기대치가 실제 달성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았거나 혹은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는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족, 친구, 친척, 동료들과의 이별 등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Agnew, 1992).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자극으로 차별, 편견, 부당한 대우, 열악한 주거환경, 범죄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긴장 요인들은 개인의 실망, 우울, 공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며 그 중 분노가 범죄와 비행에 유발하게 된다 (최영인, 엄건령, 2005).

3) 사회통제이론

Hirschi는 선천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회계층 혹은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범죄를 통제하는 주요 통제기제로 사회적 유대를 중심으로 보았고, 사회유대의 구성요소로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Hirschi, 2002). 애착은 타인에 대한 애정, 정서적 친근감, 존경 등을 말하며, 전념은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의미한다. 참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상생활에 투자하는 시간 혹은 에너지이며, 신념은 사회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하나 동조를 말한다 (Hirschi, 2002). 이후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범죄자는 타인에 대한 애착이 낮고,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순간적인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른다고 보았다. 결국 사회적 유대의 약화와 반사회적인 태도가 결합되면 사회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사회적 유대와 신념이 견고하게 결합된다면 사회적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사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유대감을 통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 Hirschi의 이론에서 나아가 Bursik과 Grasmick(2012)은 사회구조가 사회적 관계망(“Relational networks”)의 변동을 어떤 경로를 통해 유발시키고 궁극적으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요소는 공적통제(public control), 사적통제(private control), 지역통제(parochial control), 사회화(socialization)⁵⁾로 나뉘는데, 사회해체론을 기반으로 사회경제학적인 구조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체계적으로 재구조화시켰다. Bursik과 Grasmick(2012)에 따르면 Burgess의 동심원 이론에 따라 게토화가 진행된 점이지대는 사회경제학적 지위의 하락에 따른 기존 거주민들의 이탈과 원치 않는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주민 구성에 있어 급격한 전환으로 인해 거주지 분리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저해하고, 이는 다시 원치 않는 이주민들의 유입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결국, 높은 인구이동률과 더불어 인구의 이질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관계망을 약하게 만들어 통제기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범죄율이 증가하게 된다.

제2절 거주지 분리의 개념 및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거주지 분리의 개념

1)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segregation)의 개념

거주지 분리는 두 개 이상의 집단의 거주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나지

5) 공적 통제는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로부터 자원을 지원받고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역량이며, 사적 통제는 가족, 친구, 친척 등의 유대감을 통한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지역통제는 사적 통제에서 확대되어 직장, 학교, 소규모 집단 등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연결망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사회화는 지역 사회 내 공유된 가치에 대한 동의 및 학습으로 공공통제와 사적통제 및 지역통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ursik & Grasmick, 2012, p.34-40).

아니하고, 특정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집단을 나누는 기준으로 성, 종교, 인종, 국적, 민족, 사회적 계층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종 혹은 민족, 국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거주지 분리는 사회 내 존재하는 인종차별과 맞물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연구는 지역 내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지역 내 외국인이 고립되어 거주하고 있다는 것과 지역 내 외국인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이한 개념이다.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들의 거주 양상이 내국인의 거주 분포와 같이 균등하게 거주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외국인 거주 비율이 낮더라도 내국인과는 분리되어 공간적으로 고립된 채 거주할 수도 있다 (박윤환, 2010). 그러므로 외국인의 높은 거주 비율과 거주지 분리는 동일한 개념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란, 국적을 기준으로 동일 지역 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거주 분포가 균일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분리된 현상을 말한다. 즉, 거주지 분리가 심화될수록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으로부터 공간적으로 고립되어 거주함을 의미하며, 거주지 분리가 완화될수록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이 내국인들과 공간적으로 어우러져 거주함을 의미한다.

2. 외국인 거주지 분리의 원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사회의 해체

Park와 Burgess(1924)는 ‘공간’의 한정성과 ‘경쟁’이라는 인간행위의 본질에 따라 ‘지역’ 또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공간의 가치는 주택의 가격에 반영

되는데, 편리한 교통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교통이 집적되어 있는 도심지의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는 도심지 내 건물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Park & Burgess, 1924). 결국, 높은 주택 가치로 인해 도심은 상업 활동지로 변화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와 번잡한 도심을 피해 도심 외곽으로 거주공간이 이동함에 따라 도심 근린지역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공급측면에서는 미래자산가치가 높으면서도 현재 저평가된 도심근린지역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되어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비만을 투자하므로 건물의 낙후화가 심해진다 (Bursik & Grasmick, 2012). 결국 수요의 하락과 과잉 공급 및 최소한의 건물보수 등이 맞물려 도심 인근지역의 주택의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심근린지역은 저렴한 주택 임대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지 혹은 빈곤층의 거주지로 기능하게 된다. Park와 Burgess가 경제적 원인에 따른 거주지의 분화가 점이지대의 게토(Ghetto)화를 일으키고, 공동화된 지역에 외국인이 유입이 된다는 본 것에 반해, Wilson은 오히려 도심 중심지 인근지역의 게토화가 거주지 분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게토화가 일어난 지역의 경우 가족 해체, 실업률 증가, 빈곤율의 심화로 이어지며, 높은 인구이동률로 인해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이어져 해당 지역에 남아 있는 거주민들의 근로 기회를 더욱 제한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Wilson, 1987). 이로 인해 지역의 낙후화로 인한 주택 가치의 하락과 낮은 임대료가 기존 중류층의 이탈과 낮은 소득의 신규 이민자들의 유입을 일으키게 된다. 도심 인근지역의 게토화와 거주지 분리간의 인과관계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듯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게토화된 지역과 사회 하류층에 속하는 빈곤층과 이민자 및 흑인들로 이뤄진 공간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을 가지며, 이런 지역일수록 거주지 분리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본다.

2) 기존 거주민들의 배제

지역사회는 원하지 않는 외부자 유입에 따른 내부구성의 변화를 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시카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이웃으로 원치 않는 외부자들이 이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거주민들의 단합된 행동이나 금융기관의 차별, 불합리한 학교 배정, 중개업자들의 중개 거부 등이 나타났다 (Heitgerd & Bursik, 1987; Skogan, 1990; Wilson, 1991). 또한 Massey와 Lundy(2001)는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을 대상으로 인종에 따른 임대업자들의 차별에 대해 실험하였는데, 동일한 대본을 통해 주택임대가격과 임대여부를 문의한 결과, 백인이나 중산층의 역할을 쓰는 집단에 비해 흑인역양을 쓰는 집단에게 부정적인 대답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외국인들의 이민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기존 거주민들의 방어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 집단위협이론(group threat theory)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이에 따르면 다수집단은 소수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소수인종이 되어간다고 느껴 두려움을 갖게 된다 (Chiricos, Hogan, Gertz, 1997; Lane & Meeker, 2004; Quillian, 1995). 그러므로 외부로부터 소수집단인 외국인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면 지역 사회 내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당한다고 여기게 되어 외국인들의 유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외국인들이 기존 내국인들의 거주지에 편입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거주지를 형성함에 따라 거주지 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3)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 시 인종 선호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는 내국인들의 배제에서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Charles(2003)의 연구에 따르면 백인은 이웃으로 백인(57.1%), 흑인(16.8%), 아시아계(13.3%), 히스패닉계층(12.8%) 순서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흑인 또한 흑인(42%), 백인(30.3%), 히스패닉계(14.5%), 아시안계(13.1%) 순으로 이웃으로 선호하는 인종을 꼽았다. 이처럼 인종에 대한 선호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동일한 인종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국내 외국인들의 거주지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에서도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외국인 집단 거주지 유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현, 강민조, 2003; 이진영, 남진, 2012). 이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외국인 관련 상점, 의료시설, 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외국인 관련 물적 인프라가 활성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출신국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가능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 친교활동이나 정보교류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동일한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선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거주지 분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Cwerner(2001)와 Logan, Alba, Zhang (2002)에 따르면 이주 기간의 장기화로 안정적인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된 외국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선택한 초기 이주지역에서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동일한 인종에 대한 선호에 의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Charles, 2003; Clark, 1992; Patterson, 1998).

제3절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1. 국내연구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대부분의 국내연구는 외국인 범죄 현황을 기

술하거나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범죄 현황은 대부분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의 유형별 분포 기술 및 추세 파악에 편중되어 있었다. 최근에서야 비로소 외국인의 사회적 계층별, 인종별, 체류유형별로 나타나는 범죄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되었다 (김재윤, 2007; 김종오, 2009; 최영신, 2007; 최영신, 강석진, 2012; 한형서, 최미옥, 2011). 이와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혹은 거주 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증가하면서 시·군·구와 같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한 공간분석방법을 통해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지 분포가 갖는 특성과 거주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해당지역의 사회경제적, 직업적 환경의 특성, 인종별, 체류유형별에 따른 거주지 분리 등을 분석하였다 (김희철, 안건혁, 2011; 박세훈, 2010; 박윤환, 2010; 박윤환, 황의갑, 2011; 손승호, 2008; 이선화, 2008; 이진영, 남진, 2012;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최은진, 김의준, 2011). 이 중, 외국인 거주 공간의 특징과 외국인 범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국내 연구는 박윤환, 황의갑(2011)과 최영신, 강석진(2012)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박윤환, 황의갑(2011)의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74개 경찰서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 유형별 건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죄, 마약류, 기타 등)가 공간적으로 자기상관이 있는지를 밝히고자⁶⁾ Moran I 공간자기상관계수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연관성이 있으며,

6) 한 지역의 범죄율이 인접해 있는 지역들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공간자기상관(spatial autocorrelation)을 측정하고자 Moran I 공간자기상관계수를 이용한 것은 새로운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의 공간자기상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윤환, 황의갑(2011)의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과 2010년의 외국인 거주지분리의 패턴 변화와 외국인 범죄율의 패턴 변화를 지리정보시스템의 맵핑(mapping)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와 거주지 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영신, 강석진(2012)의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국적과 범죄에 취약한 지역적 환경에 따라 외국인 범죄율과 내국인 범죄율이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관련 변인과 지역 특성 관련 변인을 나눠 전자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등록외국인의 거주율, 중국인 비율, 아시아계 국적 외국인 비율, 선진국 국적 외국인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후자로는 각 지역별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독립변수로 보아 이들이 지역별 외국인 10만명당 전체 범죄 검거인원지수 및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별 내국인 10만명당 전체 범죄 검거인원지수 및 5대 범죄 검거인원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관련 변인에서는 등록외국인의 거주율과 외국인 총 범죄 간에 인종과 연관되어 부분적으로 양(+)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의 거주비중이 높을수록 외국인의 전체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아시아계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 지역의 내국인 5대 범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 특성 관련 변인만 고려하여 지역 내 외국인 및 내국인 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범죄와 5대 범죄 모두에서 지역 특성 관련 변인인 인구밀도, 인구이동률, 유흥업체수, 제조업체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신, 강석진(2012)의 연구는 아시아계에 외국인에 대해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내국인들의 기대와 실증결과가 상이함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나, 전국을 단위로 단순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일수록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다름이 없었다.

2. 해외연구

거주지 분리와 거주지 분리가 된 인종간의 범죄를 다룬 연구들을 주로 20세기 미국 시카고학파에 의해 이뤄졌다. 이들은 거주지 분리가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불평등이 사회구조적으로 외국인들에게 목표 달성 기회를 제한시킴에 따라 좌절감의 표출 혹은 경제적 빈곤의 해소방안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특히, 인종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사회 주류층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 거주지 분리가 이뤄진 인종은 사회제도적 불평등과 결합하여 수직적 계층이동의 제한과 공간적 이동의 제한이 중첩적으로 발생한다 (Massey, 1993, 1995). 백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제도적 불평등으로 소수 인종에 대한 높은 세금, 교육기관의 부족, 고용 기회 제한, 침체된 주택 가치를 우려한 부동산 및 은행 산업에서의 구조화된 차별, 흑인에 대한 편견 혹은 낮은 수용도, 모든 정부 차원에서 백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차별적인 공공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Massey, 1993). 이러한 사회제도적 불평등성이 거주지 분리와 실업률, 미혼모율, 복지 의존도, 유아사망률, 빈곤율 등과 같은 지역 사회의 해체와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결국 중첩된 제한은 거주지 분리가 이뤄진 외국인들의 사회적 지위의 변동을 제약함에 따라 이들의 일탈 행위를 강화시킨다. Massey(1995)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미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흑인들의 거주지 분리와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흑인 범죄율이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거주지 분리와 거주지 분리가 된 인종의 높은 범죄율은 우연에 기인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은 범죄피해가능성이 높

은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보다는 간접적인 경험 혹은 이미지와 사회지역의 이질성과 더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범지역이라는 이미지는 기존 거주민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탈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의 거주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Riger & Skogan, 1979). 또한 실제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들은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에 가까워지게 된다. 이런 개별적 혹은 집합적 전략은 폭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다시 이는 남아있는 거주민들이 폭력에 더 의존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되어 거주지 분리를 더욱 공고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Massey, 1995).

이런 입장에서 이뤄진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거주지 분리를 유일한 독립변수로 놓고 분석을 하거나, 거주지 분리를 다수의 독립변수 중의 일부 변수로 보아 분석을 하는 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 Logan과 Messner(1987)는 미국 내 54개 대도시권의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1970년과 1980년의 거주지분리와 폭력범죄간의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거주지 분리는 상이지수(index of dissimilarity)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각 교외지역 내 인구규모, 인구이동률, 인구의 청년층 비율, 지역문화, 인종의 구성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1970년에는 거주지 분리는 총 범죄, 강도, 폭력에 있어서는 양(+)의 관계를, 1980년에는 거주지 분리가 총범죄와 강도, 살인에 있어서 양(+)의 관계를 보임을 밝혔다.

Peterson과 Krivo(1993)는 125개의 미국의 중앙도시(central cities) 내에서 흑인의 거주지 분리와 흑인의 살인범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흑인과 백인간의 거주지 분리가 흑인 살인률의 도시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또한 거주지 분리의 효과가 소득불평등, 빈곤, 교육, 직업, 연령구성, 인

구 규모, 지역 문화와 같은 통제변수의 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계수를 보면 거주지 분리의 효과가 그 다음으로 효과가 큰 변수보다 2.5배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친족살인, 지인에 의한 살인, 묻지마 살인으로 구분하여 거주지 분리와 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친족살인보다는 지인에 의한 살인, 묻지마 살인과 연관됨을 밝혀냈다. 즉, 거주지 분리가 특정 인종의 살인과 정(+)의 관계를 가지며, 그 인과관계가 집 밖 혹은 공공장소에서 이뤄짐으로서 인종적으로 고립된 지역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외부에 표출시키게 된다.

Shihadeh와 Maume(1997), Shihadeh와 Flynn(1996)은 거주지 분리와 폭력범죄간의 연관성의 정도가 거주지 분리의 측정 방식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단순한 거주지 분리지수가 아닌 수도권의 도심과 얼마나 가깝게 분리 되었는지를 대표하는 중앙 집중화 지표를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단순히 고르게 나타나지 못한 것보다 도심 인근지역으로 집중적인 거주지 분리가 나타났을 때, 분리가 나타난 인종의 살인과 강도발생간의 강한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인종 간 공간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낮을수록 거주지가 분리된 인종의 강력범죄(살인)가 증가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Massey(1990)는 흑인들의 거주지분리, 지역 빈곤율, 주요 범죄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주요 범죄들로는 살인, 강간, 강도, 가중폭행, 절도, 자동차 절도, 빈집털이를 보았으며, 흑인들의 범죄와 빈곤간의 관계를 측정한 결과 주요 범죄율은 빈곤율과 .79 양의 관계를 가졌음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인종적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도시 내에서는 분리된 인종의 빈곤의 증가는 해당 인종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빈곤율을 악화시켜, 경제적으로 불황인 시기에는 독자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사회라도 거주지 분리가 심한 경우 극심한 사회경제학적 문제점이 있는 사회로

전환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실업, 복지의존성, 편부모 증가 등의 사회해체가 만연하게 되고 이는 해당 지역 내 범죄를 양산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하에서 Massey(1995)는 96,000명의 백인, 32,000명의 흑인 그리고 각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16개의 인근도시를 지니고 있는 도시들로 해당도시 내 총 주민 수 128,000명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이상 되는 도시들을 표본으로 흑인빈곤율과 흑인거주지분리에 따른 흑인범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위 연구에서는 표본도시들을 다시 평균소득이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나누어 검토함으로써 소득계층과 거주지 분리가 상이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황이 발생할시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에 어떤 일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소득수준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인종적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도시의 지역빈곤율과 지역범죄율이 인종적으로 통합된 지역의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빈곤율의 경우, 해당 지역 내 빈곤한 사람들의 거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주목해야할 것은 도시 내 경제상황의 악화가 지역 내 흑인 범죄율까지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인종적으로 거주지가 분리된 지역일수록 지역 범죄율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거주지 분리가 된 상태에서 계층 분리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역 빈곤율과 지역범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⁷⁾

사회학적 접근방법에 따른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면 거주지 분리는 빈곤의 지리적 집중화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해당 지역을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의 생태학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태학적 지위는 자생적으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우며, 제도화된 불평

7) 인종적으로 통합된 도시의 경우, 경제상황이 악화시 지역 범죄율이 47.9%에서 49.9%로 증가한데 반해 인종적으로 분리된 도시의 경우, 동일한 상황에서 지역 범죄율은 52.4%에서 60.4%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계층 분리까지 고려하면 인종적으로 통합된 도시의 경우 지역범죄율이 57.8%에서 61.8%로, 인종적으로 분리된 도시의 경우에는 68.4%에서 84.2%로 더 크게 증가하였다.

등이 지속되어 해당 지역 내 거주지 분리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집단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나타난 지역 내에서 높은 외국인 범죄율은 i) 사회 내 이질감 증가에 따른 사회해체로 인한 사회통제력 약화 ii) 내국인들의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혹은 두려움에 따른 차별 iii) 제도적 차별에 따른 목표와 수단과의 불일치에 따른 긴장의 증가 iv) 유입된 도시의 생태학적 지위 약화 v) 고립된 인종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하위문화로의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이 낮을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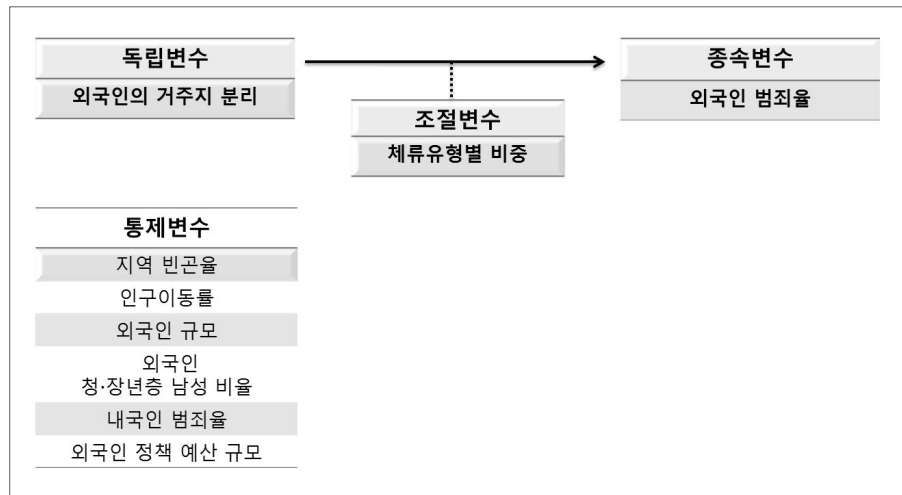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틀 및 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이론,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에 따라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위 효과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사회적 요인, 인구학적 요인, 지역적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우선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종의 이질성 증가에 따른 사회해체현상의 심화, 지속적인 외국인에 대한 차별, 편견 혹은 두려움에 의한 약한 사회적 연결망, 사회제도적 불평등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간적인 지표로 지역 빈곤율과 인구이동률을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변수로는 해당 지역의 범죄에 대한 친숙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관심도 및 범죄학에서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인구학적 요인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범죄에 대한 친숙도는 내국인의 범죄율을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외국인 정책 관련 예산을 통해 판단하고자 하였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의 인구수와 남성 청장년층 외국인의 비중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내 거주지 분리에 따른 사회해체로 인해 지역 사회 통제력이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간의 사회 유대감을 통한 관계적 연결망의 성격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상이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체류유형에 따른 외국인 비중을 통해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분석틀



2. 연구가설

1)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관계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지 분리는 지역 사회 외국인 유입에 따른 이질성 증가로 인한 사회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의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켜 반사회적인 문화 및 일탈행위, 비행, 범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박윤환, 황의갑, 2011; Agnew, 1992; Logan & Messner, 1987; Massey 1993, 1995; Merton, 1938; Park, 1936; Park, Burgess, McKenzie, 1984; Peterson & Krivo, 1993; Shaw & Mckay, 1942; Siegel, 2008). 또한 Cloward와 Ohlin(1960)은 상대적 박탈감에 주목하여, 공간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경우 주변 지역과의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 상대적 박탈감은 절대적인 수준이 아닌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 혹은 제도적인 배제 등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개개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보다는 상대적인 지

위가 중요하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수직적 이동에 대한 제도적으로 제한과 내국인의 편견과 차별은 Agnew가 주장한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 및 부정적 자극의 강화를 통해 개인의 긴장상태를 자극시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 외국인 거주지 분리가 증가할수록 외국인 범죄율은 높아질 것이다.

2) 체류유형별 비중에 따른 조절효과

지역 사회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약화될수록 개인의 긴장은 더욱 강화된다. Agnew에 따르면 지역 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져야 할 능력,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자극의 노출정도, 긴장상태인 개인 간의 상호 접촉 기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Agnew, 1992). 그러나 긴장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범죄를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질, 일탈적 행동에 대한 태도와 사전 지식 유무, 긴장 상태의 다른 공동체와의 접촉 빈도, 사회적 유대감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사회 유대의 약화는 외국인 범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충동적이고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애착이 부족한 사람은 타인과의 유대가 강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긴장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Hirschi(2002)는 특히 유대의 요소 중 타인의 평가에 대한 민감도로 정의된 애착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런데 유·청소년기에 가족을 통해 이미 형성된 내적성향은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타

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유대감보다는 사회활동에서 겪는 유대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준, 2012).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은 83,371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약 5.77%에 불과하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이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은 주로 국내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민 이후 거주지가 분리된 곳에서 받는 사회적 차별의 심화는 이민자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악화시켜, 이들의 범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있어 공범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장동료가 2011년 약 15%, 2012년 약 18%를 차지함에 따라 유사한 직업군을 가진 동일한 체류유형을 지닌 외국인 공동체가 범죄학습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찰청, 2012a).

그러나 반드시 외국인 공동체가 외국인 범죄율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외국인 공동체 내에서의 유대와 통합은 외국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일차적인 기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지닌 외국인들 간의 공동체 형성은 타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해결에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진작시켜 애착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유사한 직업군이나 체류유형에 따라 외국인의 선호 거주지가 상이하다는 것에 주목한 연구⁸⁾를 고려하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일어난 지역 간에도 어떤 체류유형을 지닌 외국인들이 주를

8) 박세훈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은 크게 공단배후 노동자 주거지(안산시 원곡동, 남양주 미곡 등), 대도시 저렴 주택지(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외국관련 시설 주변지역(인천 차이나 타운, 부산 차이나 타운, 서울 이태원 및 이슬람 마을 등),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서울 서래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단배후 노동자 주거지와 대도시 저렴 주택지의 경우에는 노동자와 서비스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전문인력의 고급주거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주로 거주한다.

이루는지에 따라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 동일한 체류유형별 외국인의 비중에 따른 조절 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유학생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

<가설 2-2>: 유학생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강화된다.

<가설 3-1>: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

<가설 3-2>: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강화된다.

<가설 4-1>: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

<가설 4-2>: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강화된다.

<가설 5-1>: 단순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

<가설 5-2>: 단순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강화된다.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자료의 수집

1. 종속변수 : 외국인 5대 범죄율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서 각 경찰서별로 분류 기준이 일목요연하지 않다. 그러나 살인, 강간, 강도(강제추행포함), 절도, 폭력 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분류상의 오류가 적고, 각 나라별 범죄 기준에 있어서도 상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자국에서의 규범과 체류국

가의 규범간의 오해의 소지가 적다. 또한 해당 범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5대 범죄만을 고려하게 되었다. 해당 자료는 08년부터 12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관할 경찰서별 주요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검거인 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등록외국인수에서 외국인 피의자 검거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구해 외국인 범죄율을 도출하였다.

2. 독립변수 :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거주지 분리를 측정하는 지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Duncan & Duncan(1955)의 상이지수(Dissimilarity)가 있다. 그러나 이 지수의 경우, Massey & Duncan(1988)이 제시한 거주지 분리의 5가지 요소인 균일성(evenness), 노출성(exposure), 집중성(concentration), 중심성(centralization), 군집성(clustering)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균일성만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군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White(1983)에 의해 제시된 “체커보드문제(chckerboard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박윤환, 20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은진, 김의준(2011)의 연구에서는 균일성은 상이지수로, 노출성은 고립지수(isolation index)로, 집중성은 Massey & Duncan(1988)의 텔타지수로, 중심성은 중심화 비율지수로 군집성은 Moran I 지수로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Wong(2005)에 따르면 Duncan의 상이지수는 거주지 분리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균일성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어, 가장 효율적인 측정도구라 할 수 있다 (박윤환, 2010). 또한 Wong(1993)은 10×10 체커보드(checker board) 도식을 활용하여 군집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Duncan의 상이지수와 이웃한 단위 지역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Morill의 상이지수⁹⁾, Wong의 상이지수¹⁰⁾ 값

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증명하였으며, 박윤환(2010)의 2010년 수도권 78개 시군구 거주지 분리지수 도출결과, 동일한 시군구의 위 세 가지의 상이지수 값의 차이가 대부분 0에서 0.03사이로 근소하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다. 즉, 우리나라 수도권 시군구 내 외국인 집단 분포 패턴은 높은 군집성을 지녀 전통적인 거주지 분리지수와 수정된 분리지수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Duncan의 상이지수를 산출하여 각 지역별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척도로 활용하였다.

해당 상이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08년부터 12년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 시군구별 등록외국인수를 이용하였다. 각 내국인과 등록외국인 거주 현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통해 수집하였으며,¹¹⁾ 각 시군구별 상이지수(D)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 시군구를 그 하위 행정 분류인 읍·면·동 수준으로 나누어 읍·면·동 내 등록외국인 비중과 내국인 비중 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 9) Duncan의 상이지수를 변형한 것으로 각 지역 단위 간 경계를 맞대고 있는지에 따라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D_{(adj)} = D - \frac{\sum_i \sum_j |C_{ij}(Z_i - Z_j)|}{\sum_i \sum_j C_{ij}}$$

(단, D= Duncan의 상이지수, C_{ij} =i 지역과 j 지역 간 경계가 접했는지 여부로 0과1의 값을 가짐, Z_i, Z_j =i, j 지역 내 외국인 거주 비율)

- 10) Duncan의 상이지수를 변형한 것으로 각 지역 단위 간 접한 경계의 길이를 가중평균하여 지역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였다.

$$D_{(w)} = D - \frac{1}{2} \sum_i \sum_j w_{ij} |Z_i - Z_j|$$

(단, D= Duncan의 상이지수, w_{ij} =i 지역과 j 지역 간 접한 경계선이 전체 경계선에서 차지하는 비율, Z_i, Z_j =i, j 지역 내 외국인 거주 비율)

- 11) 서울특별시는 <http://stat.seoul.go.kr/> 인천광역시는 www.incheon.go.kr 경기도는 <http://stat.gg.go.kr/> 에서 수집하였다.

$$D = \frac{1}{2} \sum_{i=1}^n |x_i - y_i|$$

(단, x_i = 시군구 내 등록외국인수 중

시군구 내 각 i 읍면동의 등록외국인의 비중

y_i = 시군구 내 주민등록인구수 중

시군구 내 각 i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구수의 비중)

3. 조절변수 : 체류자격유형별 등록 외국인

국내 각 시군구 지역별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유학생,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단순인력,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분류 기준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연보의 기준 및 최영신, 강석진(2012)에 따라 아래 <표 3-1>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3-1> 등록외국인 체류자격별 분류 기준

	유학생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단순인력	기타
2008 - 2009	유학 (D-2) 국어연수 (D4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직업(E-7)	배우자 (F-1-3) 국민 배우자 (F-2-1)	연수 (E-8)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F-5) 방문동거(F-1) 난민(G-1) 기타
2010 - 2012	유학 (D-2) 한국어 연수 (D41)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국민 배우자 (F-2-1) 국민 배우자 (F-5-2) 결혼이민자 (F-6)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영주(F-5) 방문동거(F-1) 난민(G-1) 기타

출처 : 최영신, 강석진 (2012, p.283);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4. 통제변수

1) 지역 빈곤율

범죄율은 지역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 지역의 빈곤율은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빈곤과 범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Allen, 1996; Hsieh & Pugh, 1993; Parker & Pruitt, 2000). 도시 지역 내 5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 국내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논문들이 해당 지역의 빈곤율을 지역적 요소 혹은 사회적 요소로 고려하여 범죄율과 양(+)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준호, 2001; 김상일, 이태구, 2010; 윤우석, 2009; 이성우, 조중구, 2006; 전재한, 권재현, 양효진, 2007; 정경석, 문태현, 정재희, 허선영, 2009). 그러므로 지역 빈곤율 또한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지역 빈곤율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경제력이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여기서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나뉠 수 있는데, 절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일정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 이하의 경제력을 지닌 상태를 의미하고, 상대적 빈곤은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를 대표하는 값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한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이며,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에 달하는 소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낙후정도를 파악하고자, 지역빈곤율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지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

는 주민의 수가 지역 내 총 주민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자료를 통해 수집하였다.

2) 인구이동률

인구가 자주 이동하는 지역의 경우, 정상적인 사회통제의 원천인 가족, 학교, 개인적인 인연, 비즈니스 공동체에 대한 관심, 법집행기관, 사회서비스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해체가 일어난 상태이기 쉽다. 또한 기존 이웃들이 더 나은 곳으로 계속 이사함으로써 지역 내 공동화가 발생하여 개인 간의 인간관계도 긴장 속에 있게 된다. 즉, 거주자가 끊임없이 바뀌는 현상은 이웃 간의 대화를 약하게 만들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를 차단시켜 해당 지역의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ornhauser, 1978). 선행연구에서도 지역 사회 인구 구성이 불안정할수록 범죄율의 증가가 일어난다고 본 바,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률을 통해 이를 통제하고자 한다 (Logan & Messner, 1987; Peterson & Krivo, 1993; Shihadeh & Flynn, 1996; Shihadeh & Maume, 1997).

인구이동률은 둘 이상의 지역 간에 발생하는 전출과 전입현상의 발생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한 이동자수를 주민등록연앙인구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최영신, 강석진, 2012). 해당 자료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기본 통계를 바탕으로 수집하였다.

3) 외국인 규모

거주 외국인 규모는 지역 사회 내 등록외국인수를 말한다. 지역 내

외국인의 거주 비율과 거주지 분리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지닐 것이라 생각하나, 박윤환(2010)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외국인 인구비율과 거주지 분리간의 상관관계는 0.34로 공간적 분포도에 따르더라도 두 변수 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즉,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다고 하여 거주지 분리가 심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학에서 인구가 많을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범죄율에 관한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외국인의 규모가 외국인 범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최영신, 강석진, 2012; Glaeser, 1998; Glaeser, Sacerdote, Scheinkman, 1996; Logan & messner, 1987; Verdier & Zenou, 2004).

본 연구에서는 거주지 분리에 따른 외국인 범죄율의 변화를 보고자 함으로 거주 외국인의 총 규모는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하며 인구와 범죄율 간에는 이차함수의 형태를 지니므로 (Logan & messner, 1987) 거주 외국인의 규모 값에 로그를 취해 거주외국인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4) 외국인 청·장년층의 남성 비중

일반적으로 범죄는 남성이 여성보다, 젊은 20-30대 층이 기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난다. 국내 경찰청의 범죄통계(2012a)에 따르더라도 2012년도 외국인 피의자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5대 범죄 외국인 피의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각각 35.79%, 28.6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역 별 20-30대 외국인 남성의 수가 해당 지역 내 등록외국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지역 내 젊은 층의 외국인 남성에게 기인한 범죄증가 효과를 통제하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를 통해 수집하였다.

5) 지역 사회 내 범죄에 대한 빈도

지역 사회 내 범죄에 대한 높은 빈도로 인해 범죄에 대한 친숙함이 큰 경우,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들 또한 지역사회문화에 적응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사회화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유입된 지역 내 높은 범죄율은 외국인들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불평등과 결부되는 경우, 폭력적인 행위가 일상생활에서의 해로운 상황들에 대한 합리적 적응으로 작용하는 생태적 지위를 창출하게 된다 (Logan & Messner, 1987; Massey, 1995; Peterson & Krivo, 1993). 그러므로 기존 지역 사회 내 범죄에 대한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내국인의 범죄율을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는 각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외국인 범죄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범죄로 한정하였다. 내국인 범죄율은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수에서 내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도출하였다.

6) 지역사회 외국인 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나라의 경우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7년 7월 18일 재한외국인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후 동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정책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2008년 12월 17일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세워 일관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목표를 살펴보면 i)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ii) 질 높은 사회통합, iii)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iv) 외국인 인권옹호라 할 수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수인재 유치에 위한 외국인 편

의 시설 제공 및 귀화조건 완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언어교육, 보육, 취업, 의료 등의 사회적응 지원,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 외국인 집단 거주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민 인권보호 및 지원,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결국 해당 정책은 외국인의 복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 내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외국인의 지역 사회 내 순응도를 증가시켜 범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해당 예산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의 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지표로도 활용가능하다.

해당 자료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제1차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자료를 토대로 수집하였으며, 시·도 차원에서 쓰인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외국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시군구 차원에서 배분된 예산만을 고려하였다.

<표 3-2> 변수 정리

	변수	조작적 정의	출처
종속변수	외국인 범죄율	외국인 범죄율 = $\frac{\text{시군구별 외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text{시군구별 등록외국인수}}$	지방경찰청
독립변수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	상이지수(D) = $\frac{1}{2} \sum_{i=1}^n x_i - y_i $	지방자치단체
	지역 빈곤율	지역 빈곤율 = $\frac{\text{시군구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text{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수}}$	보건복지부
	인구 이동율	인구이동률 = $\frac{\text{시군구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자수}}{\text{시군구별 주민등록연앙인구수}}$	지방자치단체
조절변수	체류자격 유형별 외국인 비중	체류자격별 거주비율 = $\frac{\text{시군구별 체류자격유형별 외국인수}}{\text{시군구별 등록외국인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제변수	외국인의 규모	거주 외국인의 규모 = $\ln(\text{시군구별 등록외국인 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청·장년층 남성 비중	20-30대 외국인 남성 비율 = $\frac{\text{시군구별 20,30대 남성외국인수}}{\text{시군구별 등록외국인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사회 범죄 빈도	내국인 범죄율 = $\frac{\text{시군구별 내국인 5대 범죄 피의자수}}{\text{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수}}$	지방경찰청
	지역 자치단체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관심도	외국인 정책 예산 = $\ln(\text{시군구 별 외국인 정책 예산액})$	외국인정책위원회

제3절 연구 모형

1. 선형회귀모형 방정식

$$Y_{it} = \alpha + \beta_1 X_{1it} + \sum_{j=2}^{j=5} \beta_j S_{jit} + \sum_{k=6, j=2}^{k=9, j=5} \beta_k X_{1it} S_{jit} + \sum_{h=10}^{h=15} \beta_h X_{hit} + \epsilon_{it}$$

Y_{it} = i 지역 t기 외국인 범죄율

X_{1it} = i 지역 t기 상이지수

S_{jit} = i 지역 t기 외국인의 j 체류자격 비중

(j=2 : 유학생, j=3 : 전문인력, j=4 : 결혼이민자, j=5 : 단순노동인력)

X_{10it} = i 지역 t기 지역 빈곤율

X_{11it} = i 지역 t기 인구 이동율

X_{12it} = i 지역 t기 거주 외국인의 규모(ln)

X_{13it} = i 지역 t기 20-30대 외국인 남성 비율

X_{14it} = i 지역 t기 외국인 정책 예산(ln)

X_{15it} = i 지역 t기 내국인 범죄율

2. 분석방법

패널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의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어 오차항 간 자기상관관계(serial correlation) 혹은 동시적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동 최소자승법(Pooled OLS)를 통해 추정한 추정량은 최우수 선형불편추정량이 되지 못한다 (민인식, 2009). 본 분석에 앞서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존재하는지 Likelihood ratio test 통해 검정한 결과 LR $\chi^2(59) = 232.75$ 로 검정통계량의 p값이 0.01보다 작기 때문에 1% 유의수준에서 오차항이 동분산성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그러므로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하나, 자기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일반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였으나, 각 변수간의 상관계수가 0.7을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¹²⁾

12)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부록 1]을 참조

제4장 분석결과

제1절 기술통계분석

1. 외국인 범죄율에 관한 기술통계량

수도권 내 60개 시군구 5개년도 외국인 범죄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율의 평균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9,985명으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32,355명으로 나타나 5개년도 내 지역별 외국인 범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각 시군구별 외국인 범죄율의 5개년도 값의 평균을 통해 관측한 결과, 최소값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4,858명, 최대값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24,071명으로 나타났으며, 각 년도별 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최소값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8,070명, 최대값은 외국인 인구 10만명당 11,768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의 차이는 지역별 차이가 년도별 차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 외국인 범죄율의 기술통계량

종속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개체
외국인 범죄율	0.009985	0.005255	0	0.032355	N = 300
	0.009985	0.004543	0.004858	0.024071	n = 60
	0.009985	0.002694	0.008070	0.011768	T = 5

외국인 범죄율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값 및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율은 왜도가 0보다 커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이며, 첨도가 3보다 큰 것으로 보아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상위권 지역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율을 지닌 지역보다 외국인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평균보다 높은 외

국민 범죄율을 지닌 지역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 외국인 범죄율의 분포적 특성

종속변수	중앙값	평균	왜도	첨도
외국인 범죄율	0.008714	0.009985	1.641686	6.724804

2. 거주지 분리에 관한 기술통계량

수도권 내 60개 시군구 5개년도 거주지분리를 모두 고려한 결과,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의 평균은 약 36.26%로 수도권 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를 평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약 58.53%p로 나타남에 따라 거주지 분리에 있어서 년도별·지역별 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외국인 범죄율과 유사하게 5개년 평균값으로 구한 시군구별 거주지 분리의 차이가(49.90%p) 시군구별 평균으로 구한 년도별 거주지 분리의 차이(2.64%p)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지역 내 거주지 분리정도는 시간에 흐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것으로 보이며, 시군구 간의 거주지 분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거주지 분리의 기술통계량

독립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개체
상이지수	0.362642	0.111202	0.080508	0.665821	N = 300
	0.362642	0.106645	0.147249	0.646227	n = 60
	0.362642	0.033836	0.344814	0.371174	T = 5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값 및 왜도와 첨도를 계산한 결과, 외국인의 범죄율은 왜도가 0에 가까워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첨도가 3보다 작은 것

으로 보아 분포의 꼬리가 정규분포보다 더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주지 분포의 중앙값과 평균간의 차이가 근소한 것으로 보아 수도권 내 거주지 분리의 경우, 평균값인 약 36%인 보통수준의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높은 거주지 분리를 보이는 지역의 빈도가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4-4> 거주지 분리의 분포적 특성

독립변수	중앙값	평균	왜도	첨도
상이지수	0.358445	0.362642	0.212976	2.925733

3. 조절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수도권 내 60개 시군구 5개년도 체류유형별 외국인 거주 비율을 모두 고려한 결과, 각 체류유형별 외국인 거주 비율은 다음 <표 4-5>와 같다. 평균적으로 한 시군구 내 체류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의 비율(6.74%)이 가장 낮으며, 그 뒤를 이어 유학생(7.41%), 결혼이민자(15.61%), 단순노동인력(55.28%)순으로 증가한다. 이를 동일한 5개년 동안 전국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한 체류유형별 외국인 비율(유학생(9.04%), 결혼이민자(14.48%), 전문인력(14.95%), 단순노동인력(56.30%))과 비교하면 수도권에 단순노동인력과 결혼이민자의 거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이는 비전문취업(E-9)비자를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약 85.49%가 제조업에 종사함에 비추어 볼 때, 단순노동인력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므로 공장이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최근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배우자가 주로 ‘장치 및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3.9%), ‘단순노무종사자’(18.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6.6%)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 비해 2012년도에는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의 비율이

51.9%에서 58.6%로 6.7%p증가하여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3). 이는 결혼이민자의 유입이 초기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 이들이 단순노동 근로자인 내국인과의 결혼으로 배우자의 직장과 가까운 수도권에 거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체류유형별 외국인 비율의 기술통계량

조절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개체
유학생 비율	0.074115	0.089222	0.000985	0.439877	N = 300
	0.074115	0.087174	0.007388	0.384396	n = 60
	0.074115	0.021517	0.050355	0.091455	T = 5
전문인력 비율	0.067444	0.065951	0.006751	0.398966	N = 300
	0.067444	0.063547	0.009347	0.304513	n = 60
	0.067444	0.019112	0.048856	0.080744	T = 5
결혼 이민자 비율	0.156141	0.069641	0.051223	0.347069	N = 300
	0.156141	0.068757	0.063354	0.315745	n = 60
	0.156141	0.013625	0.145859	0.170434	T = 5
단순 노동인력 비율	0.552806	0.183912	0.120374	0.892276	N = 300
	0.552806	0.174349	0.166041	0.842563	n = 60
	0.552806	0.061907	0.467097	0.631251	T = 5

4. 기타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수도권 내 60개 시군구 5개년도 나머지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모두 고려한 결과는 다음 <표 4-6>, <표 4-7>과 같다.

<표 4-6> 기타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변수	개체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역빈곤율	300	0.01913	0.00709	0.00527	0.03669
인구이동률	300	0.37377	0.09902	0.03198	1.03518
외국인수(ln)	300	8.89725	0.78028	6.98379	10.6991
20-30대 남성 외국인비율	300	0.28848	0.12974	0.13190	0.60438
내국인 범죄율	300	0.01228	0.00584	0.00000	0.05046
외국인 정책 예산액(ln)	240	0.52508	0.73440	0.00000	3.74668

<표 4-7> 기타 변수의 분포적 특징

변수	중위값	평균	왜도	첨도
지역빈곤율	0.01703	0.01912	0.50656	2.48620
인구이동률	0.35585	0.37377	2.90312	16.24584
외국인수(ln)	8.95796	8.89725	-0.17671	2.96208
20-30대 남성 외국인비율	0.24440	0.28848	1.01318	2.80427
내국인 범죄율	0.01125	0.01228	2.99335	16.80947
외국인 정책 예산액(ln)	0.13976	0.52508	1.58064	5.36480

제2절 이분산성을 고려한 선형회귀분석결과

1. 분석절차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만을 고려한 모형(model 1)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다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통제변수를 고려한 모형(model 2)을 이용하여 독립변수, 조절변수,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model 1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독립변수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변수가 제어하는지를 통제변수에 차이를 두어 검토하였다 (model 3, model 4, model 5).

<표 4-8> GLS(hetero) 분석 결과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상이지수		-0.00047	-0.00221	0.05991 ***	0.03564 *	0.03940 *
조 절 변 수	유학생비율	-0.03789 ***	-0.02913 ***	-0.01435	-0.00957	-0.00345
	전문인력비율	-0.00088	0.01654 ***	0.03018 *	0.04329 **	0.02178
	결혼이민자 비율	-0.04124 ***	-0.02128 ***	-0.00402	0.0035	-0.00372
	단순인력비율	-0.02008 ***	-0.01045 ***	0.00076	0.00336	0.00407
상 호 작 용 항	상이지수*			-0.06846	-0.04683	-0.07918
	유학생비율			**		**
	상이지수*			-0.08722	-0.08458	-0.01914
	전문인력비율			*	*	
	상이지수*			-0.11055	-0.05009	-0.05750
	결혼이민자비율			***		*
통 제 변 수	상이지수*			-0.05966	-0.03996	-0.04477
	단순인력비율			***	**	**
	빈곤율		-0.05281 ***		-0.08172 ***	-0.06027 **
	인구이동률		0.00014		-0.00256 *	0.00015
	외국인수(ln)		0.00036		0.00098 ***	0.00035
	외국인20-30대 남성비율		0.00201		0.00208	0.00132
	내국인 범죄율		0.43490 ***		0.43379 ***	0.40046 ***
통 제 변 수	외국인정책 예산(ln)		0.00034 **			0.00026
	상수항	0.03020 ***	0.01297 ***	0.00921	-0.00576	0.00055
Adj. R^2		.3380	.5428	.3441	.5098	.5545
Wald chi2		323.47	451.12	359.03	446.88	424.52
*** : p<0.01, ** : p<0.05, * : p<0.1						

2. 독립변수의 효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model 1과 model 2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상이지수는 종속변수인 외국인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model 3, model 4, model 5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상이지수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model 3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model 4, model 5에서는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의 부호가 모두 양(+)으로 나타나 상이지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의 주효과

model 1과 model 2를 고려하여 조절변수인 각 체류유형별 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1% 유의수준에서 유학생비율과 결혼이민자비율, 단순인력비율은 외국인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 이들 비율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범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2는 1% 유의수준에서 전문인력의 비율이 외국인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이들 비율이 높을수록 외국인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절변수의 조절효과

1) 유학생 비율의 조절효과

유학생 비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검

또한 model 3, model 4, model 5에 따르면 상이지수와 유학생비율의 상호작용항은 model 3과 model 5에서 5%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model 3과 model 5의 Adj. R-square 값이 모두 각각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model 1과 model 2의 Adj. R-square 값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와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 부호(-)값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학생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전문인력비율의 조절효과

전문인력비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고려한 model 3에 따르면 10% 유의수준에서 전문인력비율과 상이지수와 전문인력비율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model 4에 따르면 더라도 전문인력비율과 상이지수와 전문인력비율의 상호작용항이 각각 5%유의수준, 10%유의수준에서 외국인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odel 3은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model 1에 비해 Adj. R-square 값이 증가하였고,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와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 부호(-)값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비율의 조절효과

결혼이민자비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model 3, model 5에 따르면 model 3은 1%유의수준에서 model 5는 10%유의수준에서 거주지분리와 결혼이민자비율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은 상호작용항

용향을 고려하지 않은 model 1에 비해, model 5는 model 2에 비해 Adj. R-square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와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 부호(-)값이 반대로 나타남을 고려할 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단순인력비율의 조절효과

단순인력비율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model 3, model 4, model 5에 따르면 model 3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model 4, model 5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상이지수와 단순인력비율의 상호작용항이 외국인 범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3, model 4는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model 1에 비해, model 5는 model 2에 비해 Adj. R-square 값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거주지 분리를 나타내는 상이지수의 추정계수의 부호(+)와 상호작용항의 추정계수 부호(-)값이 반대로 나타남을 고려할 시, 단순인력비율이 높을수록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약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통제변수의 효과

빈곤율의 경우, model 2와 model 4에서는 1%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5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빈곤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외국인의 범죄율은 낮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이동률의 경우, model 4에서 10%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의 범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내국인범죄율은 model 2, model 4, model 5에서 모두 1%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으로 나타나 내국인 범죄율이 높은 지역은 외국인범죄율도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제3절 종합 및 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선행회귀분석의 결과,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은 기각되지 않았다. 이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사회의 해체 혹은 해당 지역 사회 내 제도적·사회적·문화적 차별에 따른 긴장상태의 증가로 인해 해당 지역 내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이뤄지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 내 거주지 분리 평균 상·하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외국인 거주지 분리 5개년 평균 상·하위 10개 시군구

순위	상위 10개 시군구		하위 10개 시군구	
	시군구	D	시군구	D
1	경기 군포시	0.646	경기 양평군	0.147
2	경기 안산시	0.613	서울 은평구	0.167
3	경기 시흥시	0.558	인천 계양구	0.192
4	서울 구로구	0.533	서울 서초구	0.206
5	인천 남동구	0.527	경기 의왕시	0.212
6	경기 김포시	0.508	경기 여주군	0.214
7	경기 양주시	0.502	서울 중랑구	0.216

8	서울 광진구	0.472	경기 광주시	0.229
9	서울 중구	0.464	경기 남양주시	0.230
10	서울 관악구	0.459	인천 연수구	0.235

위 <표 4-9>에서 나타난 외국인 거주지 분리 상위 10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수도권 남서부 화성, 안산, 시흥, 인천, 김포로 연결된 공업 지역벨트 인근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용균, 이현욱, 2012).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거주지 선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연구에서 직장과의 근접성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고용밀도, 제조·건설업체의 수, 외국인 공동체 유무가 거주지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철, 김주진, 1997; 이진영, 남진, 2012; 최재현, 강민조, 2003). 이를 고려하면 해당 지역으로의 집중적인 거주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선호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선호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과 내국인 근로자들간의 직업경쟁 심화 및 불법체류를 통한 정주화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통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기 취업임을 감안하여 가족동반도 금지된다. 또한 근로개시는 반드시 계약한 사업장에서 이뤄져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이는 거주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들의 자유로운 선택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의 배제나 수용성의 저하 또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2012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 이주민과의 단순접촉의 경험은 다문화 수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생활공간의 공유에 따른 외국인들과

의 단순한 물리적 접촉빈도의 증가는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배제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 거주지 분리가 나타난 지역은 선진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집적하여 거주하는 몇몇 지역¹³⁾을 제외하고는 좁은 골목길 위주의 도로, 노후된 임대주택의 밀집,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주택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양한 사례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공윤경, 2013; 김은미, 김지현, 2008; 김일림, 2009; 최재현, 강민조, 2003). 또한 홍석기(2009)의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의 경우 50%가 도심 반경 5km 내에 위치하여 거주지 분리가 높게 일어난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교육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배제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현재 수도권에 나타난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는 입국 초기 제도적으로 주거지 선택의 제약과 외국인이 집적된 지역에 대한 내국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및 거주지 환경의 열악화로 발생된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내·외국인 간 거주지가 분리된 지역은 구조화된 사회·문화·경제적 배제를 야기하고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긴장을 증가시켜 외국인들의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상이지수와 외국인 범죄율간의 정(+)의 관계가 신뢰수준 99%(model 3), 90%(model 4, model 5)에서 기각되지 않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체류유형별 비중에 따른 조절효과의 결과를 정리하면 동일한 체류유형을 지닌 외국인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 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정(+)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생활에서의 차별과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13)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서래마을), 용산구 동부이촌동(일본인 마을), 용산구 한남동, 종로구 평창동 등을 말한다.

등으로 인해 높은 부정적 자극에 직면하는 단순인력 외국인 계층에 있어서도 동일한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단순인력의 외국인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상황에 따라 입국부터 쿼터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직업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인력외국인의 경우 대부분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에 주로 종사하므로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결국 이러한 직업 자유의 제한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외국인의 좌절감 혹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사회적 이탈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해 거주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체류기간의 경과로 인한 불법체류자시 이들의 노동환경은 신분상의 불안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급여수준을 비교하면 단순노동인력의 경우 소득상의 불평등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10>에 따르면 상위 10%의 근로소득수준을 지닌 경우에는 내·외국인 근로자 간 소득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 근로자로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이 내국인 근로자의 1인당 소득의 약 66.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1인당 급여 수준

1인당 급여총계 (단위:원)	내국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전체	상위10%	전체	상위10%
2008	25,764,612	85,013,034	17,139,186	85,394,945
2009	25,853,152	85,114,959	17,129,981	83,399,316
2010	26,427,608	89,645,590	17,760,405	80,339,913
2011	28,174,829	94,556,687	18,646,221	80,866,890

출처 : 국세청(2009, 2010, 2011,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인력외국인의 비율이 높을 지역일수록 범죄

율에 미치는 거주지 분리의 효과가 완화된다는 것은 동일 계층이 군집하여 거주함에 따라 발생하는 애착의 증가와 단순인력 외국인 특유의 규범적 생활에 따른 전념과 참여가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킨 따른 결과로 보인다. 범죄자는 타인의 희망과 기대에 둔감한 경향이 있으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선 충분한 물리적 시간과 범죄 시드는 비용보다 높은 편익을 얻은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인력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아시아국가 출신으로 국내에서 유사한 사회적 환경에 놓임에 따라 친교활동 및 정보교환, 사회서비스 접근에 있어 연결망으로써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수상, 장임숙, 2008).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의 존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는 범죄사실이 적발될 시 받게 될 공동체의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범죄와 비행 등의 반규범적 행동을 할 시간적 여유와 에너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범적 생활에의 참여가 통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Hirschi, 2002). 대표적인 규범적 행위로는 직업 활동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확고한 목표를 지니고 이주해온 사람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에의 전념과 참여는 통제력 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위법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에 따른 편익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함으로 노동자의 경우, 범죄발생이 낮을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사회적 유대감으로 인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가 일어난 지역이라도 단순노동인력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 범죄가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인력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 비해 범죄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자들의 체류유형을 살펴

보면 다음 <표 4-11>과 같다.

<표 4-11> 체류유형별 범죄자수 및 범죄율

2011	단순 인력	전문 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무직	기타	총계
살인	58	7	2	1	30	5	103
강도	47	17	15	0	40	34	153
강간	127	65	25	1	48	46	312
절도	692	242	162	37	403	221	1757
폭력	3743	1329	376	109	1311	886	7754
5대 범죄	4667	1660	580	148	1832	1192	10079
체류유형별 범죄율 (단위: 인구 10만명당)	853.20	3458.33	659.09	102.07	-	-	-
2012	단순 인력	전문 인력	유학생	결혼 이민자	무직	기타	총계
살인	49	8	0	1	14	12	84
강도	34	18	9	0	47	33	141
강간	83	75	21	0	54	115	348
절도	344	224	137	47	361	441	1554
폭력	2770	1419	427	139	1388	1930	8073
5대 범죄	3280	1744	594	187	1864	2531	10200
체류유형별 범죄율 (단위: 인구 10만명당)	684.76	3488.00	707.14	126.35	-	-	-

출처 : 경찰청(2011, 2012a),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표 4-11>에 따르면 5대 범죄에 있어서 절대적인 규모로는 전문인력의 범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해당 체류유형별 등록인구수로 나눠 범죄율로 비교하면 전문인력의 범죄율이 현저히 높다. 그러므로 전문인력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은 외국인 범죄율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해체론, 긴장이론, 사회통제론의 이론으로는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전문인력의 세부 유형인 예술홍행비자가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임석희, 송주연 (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정부의 ‘유홍업소 종사 외국인 여성무회 대책’에 의한 무용수 비자 발급 중단시기와 예술홍행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이 약 2600명이 감소된 시기가 일치함에 따라 예술홍행 체류자격이 전문인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유홍업소 종사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불법업소나 폭력조직 등에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폭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경제력이 높은 전문외국인력이 예술홍행 체류자격을 지닌 여성이 근무하는 유홍업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비와 주폭 등에 의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을 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간 5대 범죄율이 높았던 지역 중 용산구, 오산시, 평택시, 동두천시, 의정부시는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술집, 기지촌과 예술홍행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들의 거주와의 연관성을 짐작하게 한다. 즉,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면 전문인력 외국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외국인 범죄율이 발생하는 분석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이들이 군집하여 거주지 분리가 이뤄지는 지역에는 거주지 분리가 외국인 범죄율이 미치는 효과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유형의 집적에 따른 지역 내 사회적 유대감에 의한 범죄 통제력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 지역 내 빈곤율이 외국인 범죄율과 음(-)의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국내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른 사회적 배경 및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Castles과 Miller(2009)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정착과정은 개인의 이주를 거쳐 가족의 결합, 민족공동체의 형성, 주류사회로의 동화 혹은 배제에 따른 정착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시대를 거쳐 1920년대부터 활발히 이민이 이뤄졌던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동이민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이민이 1990년

대에 들어서야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박세훈, 2010). 즉, 이민의 역사가 짧아, 서구의 이민국가와는 달리 이민자 유입에 따른 계도화 현상이 진행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어 거주지 분리가 이뤄진 지역과 지역 빈곤율이 양(+)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범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지닌 범죄자, 범행에 적합한 대상, 범죄 대상의 노출 정도, 낮은 적발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Cohen & Felson, 1979; Cohen, Kluegel, Land, 1987). 실제 지역 내 빈곤율에서 외국인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외국인 수급자가 많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2012년간 평균 0.16%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2013).¹⁴⁾ 즉, 분석에 사용한 빈곤율은 내국인의 빈곤율이라 볼 수 있고, 이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내국인들은 매력적인 범죄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적합한 대상으로도 볼 수 없어 빈곤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 범죄율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4) 외국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i)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ii)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며, ii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가 될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繼父子)·계모자(繼母子) 관계와 양친자(養親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으로서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8-2012년에 걸쳐 외국인 범죄율에 있어 지역적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인을 외국인 거주지의 분리로 보아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실태 기술에서 벗어나 외국인들의 고립된 거주를 토대로 외국인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공간적 분석 및 근본 원인을 실증분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분산성을 고려한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주요 결과, 외국인의 거주지가 분리된 지역일수록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는 지리적 이점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부분도 있으나, 외국인의 입국단계부터 체류 단계까지에 있어서 차등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적 차별 및 내국인의 배타적인 태도와 편견에 기인한 부분도 존재한다. 내·외국인 간의 거주지 분리가 일어난 지역의 경우, 거주지 분리가 낮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불평등성의 집중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높은 긴장상태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국내치안 상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더 나아가 범죄에 대한 내국인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Xenophobia)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현상은 정책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절변수의 효과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체류유형의 외국인들이 밀집하

여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 분리에 따른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효과가 약화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차별을 가장 높게 받고 있는 단순노동인력 외국인들이 고립되어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높은 불평등성의 집중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사회적 유대감의 효과로 인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문인력 외국인들의 경우에도 외국인 범죄율과 상관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된 지역의 경우 외국인 범죄율에 미치는 거주지 분리의 영향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이 외국인의 거주지 분리로 인한 외국인 범죄율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외국인들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넘어서 내·외국인간의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 외국인 범죄율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인 범죄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인 경찰활동 뿐만아니라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도정책 혹은 외국인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정책은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체류유형별에 따른 상대적 불평등성도 높다. 전문 인력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장기화하고, 영주권 자격 요건의 완화 등이 이뤄지는 반면, 단순노동인력의 경우에는 정주화 방지를 위한 순환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동화주의정책에 따라 내국인과의 유대를 중시하나, 결혼이민자들의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정책간의 차이는 외국인들의 유대관계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범죄율 완화에 장기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범죄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외국인과 내국인간의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경우, 첫째, 데이터의 수집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외국인 범죄 통계는 각 경찰서별로 집계된 것으로 데이터 수집시기 및 작성자의 차이로 인해 자료의 오차, 누락 등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존재하는 외국인 관련 데이터의 경우, 시·군·구별로 분류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외국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들의 개별적인 소득이나 학력과 같은 요소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해당하는 소득이나 학력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Lander(1954)의 연구도 있으나,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범죄학의 통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범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국적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외국인의 범죄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범위의 한계 및 이분산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나,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분석을 시행한다면, 거주지 분리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풍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경찰청 외사국. (2011). 외국인 범죄지수 분석 결과 보고. 서울: 경찰청.
- 경찰청. (2011). 경찰청 범죄통계. 서울:경찰청.
- 경찰청. (2012a) 경찰청 범죄통계. 서울:경찰청.
- 경찰청. (2012b) 경찰백서. 서울:경찰청.
- 고준호. (2001). 청주시 도심의 범죄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36(3), p.329-341.
- 공윤경. (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 한국민족문화, 48, p.183-214.
- 국세청. (2009). 국세통계연보. 서울:국세청.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서울:국세청.
- 국세청. (2011). 국세통계연보. 서울:국세청.
- 국세청. (2012). 국세통계연보. 서울:국세청.
- 김상일, 이태구. (2010). 도시지역범죄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1-22.
- 김은미, 김지현. (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p.1-35.
- 김일림. (2009). 한국적 다문화 이론과 공간에 대한 고찰: 서울의 경우.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p.95-106.
- 김재윤. (2007). 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형사정책, 19(2), p.371-391.
- 김정규, 신동준. (2011). 이민사회와 범죄. 사회이론, 39, p.113-158.
- 김종오. (2009).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7, p.37-127.
- 김호철, 김주진. (1997).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주거 실태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2(1), p.345-362.
- 김희철, 안건혁. (2011). 이주회로별 수도권 외국인 거주지역 공간분포

- 와 영향요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5), p.233-248.
- 박성훈, 김준호 (2012) 범죄 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0, p.259-293.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연구(I). 경기: 국토연구원.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 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p.69-100.
- 박윤환, 황의갑. (2011). 수도권 외국인 범죄의 공간적 패턴에 대한 연구. 대한범죄학회 학술대회, p.39-56.
- 박윤환. (2010). 수도권 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48(4), p.429-453.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연감. 경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경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경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보건복지부. (2013). 지역별 외국인 기초수급자 수. 정보공개청구 (2013.11.18.)
- 서울지방경찰청. (2013). 지역별 외국인 5대 범죄 피의자 수. 정보공개청구(2013.10.30.)
- 손승호. (2008).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변화와 주거지분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1), p.19-30.
- 신동준. (2012). 다문화사회 범죄문제의 사회적 맥락: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2, p.183-217.
- 여성가족부. (2013).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서울: 외국인정책위원회.
- 윤우석. (2009). 경찰력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경찰학회

- 보, 11(2), p.201-230.
- 이만중. (2002). 범죄학개론. 서울: 學現社.
- 이상열. (2007).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6, p.79-110.
-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 이성우, 조중구. (2006). 공간적·환경적 요인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7(2), p.7-76.
- 이수상, 장임숙. (2008).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연결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4), p.243-268.
- 이순래, 곽대경, 기광도, 김상원, 류준혁, 박정선, 박철현, 연성진, 이성식, 최응렬. (2010).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청목.
- 이용균, 이현욱. (2012).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2(2), p.59-74.
- 이진영, 남진. (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國土計劃, 47(1), p.85-100.
- 임석희, 송주연(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p.275-294
- 전대양.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형설출판사.
- 전재한, 권재현, 양효진 (2007). GIS를 이용한 범죄의 공간적 특성.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15(1), p.3-7.
- 정경석, 문태현, 정재희, 허선영. (2009). GIS와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시·공간적 도시범죄 패턴 및 범죄발생 영향요인분석.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2(1), p.12-25.
-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6(6), p.117-129.
- 최영신(2007).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 범죄. 형사정책연구, 18(3),

p.1319-1340.

- 최영신, 강석진.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 최영인, 염건령. (2005) 범죄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 서울: 백산출판사
- 최은진, 김의준. (2011). 출신국적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지 분리. 한국도시행정학회, 24(4), p.85-107.
- 최재현, 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분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p.17-30.
- 한형서, 최미옥. (2011).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의 유형과 실태분석. 경기개발연구원, 13(3), p.61-84.
- 홍석기. (2009). 서울, 과연 외국인 친화 도시인가. 정책리포트, 32, p.1-21.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p.47-87.
- Allen, R. C. (1996).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Property Crim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5(3), p.293-308.
- Bursik, R. J. & Grasmick, H. G. (2012). *Neighborhoods and Crime :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Castles, S. & Miller, M. J.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St.
- Charles, C. Z. (2003). The dynamics of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9. p. 67-207.
- Chiricos, T., Hogan, M., & Gertz, M. (1997). Racial Composition of Neighborhood and Fear of Crime. *Criminology*, 35(1),

p.107-132.

- Clark, W. A. (1992). Residential preferences and residential choices in a multi-ethnic context. *Demography*, 29(3), p.451-466.
- Cloward, R. A. & Ohlin L. E.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Y: Free Press.
-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p.588-608.
- Cwerner, S. B. (2001). The times of migr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27(1), p.7-36.
- Duncan, O. D., & Duncan, B. (1955).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segregation index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0(2), p.210-217.
- Durkheim, E. (1897). *Le suicide*. Paris : [s.n.].
- Glaeser, E. L. (1998). Are Cities Dying?.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2), p.139-160.
- Glaeser, E. L., & Sacerdote, B. (1996). *Why is there more crime in cities?*. NBER Working Paper #5430, 1996.
- Heitgerd, J. L., & Bursik Jr, R. J. (1987). Extracommunity Dynamics and the Ecology of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p.775-787.
- Hirschi, T (2002). *Causes of Delinquency*. London : Transaction Publishers.
- Hirschi, T., & Gottfredson, M.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ical Theory: Past to Present Essential Readings*, p.228-240.
- Hsieh, C. C., & Pugh, M. D. (1993). Poverty, income inequality, and violent crime: a meta-analysis of recent

- aggregate data studies. *Criminal Justice Review*, 18(2), 182-202.
- Kornhauser, R. R. (1978).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An appraisal of analytic model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der, B. (1954). *Towards an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c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ane, J., & Meeker, J. W. (2004). Social disorganization perceptions, fear of gang crime, and behavioral precautions among Whites, Latinos, and Vietnames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2(1), p.49-62.
- Logan, J. R. & Messner, S. F. (1987).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and Suburban Violent. *Crime Social Science Quarterly*, 68(3), p.510-527.
- Logan, J. R., & Messner, S. F. (1987). Racial residential segregation and suburban violent crime. *Social Science Quarterly*, 68(3), p.510-527.
- Logan, J. R., Alba, R. D. & Zhang, W. (2002). Immigrant Enclaves and Ethnic Communities in New York and Los Ange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2), p. 299-322.
- Massey, D. S. & Denton, N. A. (1988). The Dimensions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cial Forces*, 67, p.281-315.
- Massey, D. S. & Lundy, G. (2001). Use of Black English and racial discrimination in urban housing Markets: New methods and findings. *Urban Affairs Review*, 36, p. 470-496
- Massey, D. S. (1990).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American Journal of*

- Sociology*, p.329–357.
- Massey, D. S. (1993). *American apartheid: Segregation and the making of the undercl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ssey, D. S. (1995). Getting away with murder Segregation and violent crime in urban America.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3(5), p.1203–1232.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p.672–682
- Park, R. E. (1936). Human ec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p.1–15.
- Park, R. E., & Burgess, E. W. (1924). *The Science of 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Park, R. E., Burgess, E. W., & McKenzie, R. D. (1984). *The c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er, K. F. & Pruitt, M. V. (2000). Poverty, poverty concentration, and homicide. *Social Science Quarterly*, 81(2), p.555–570.
- Patterson, O. (1998). *The Ordeal of integration: Progress and Resentment in America's racial crisis*. New York: Perseus.
- Peterson, R. D., & Krivo, L. J. (1993). Racial segregation and black urban homicide. *Social Forces*, 71(4), p.1001–1026.
- Quillian, L.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4), p.586–611.
- Riger, S. & Skogan, W. G., (1979). *Fear of Crime*. Visage Press
- Shaw, C. R., & McKay, H. D.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hadeh, E. S., & Flynn, N. (1996). Segregation and crime: The effect of black social isolation on the rates of black urban violence. *Social Forces*, 74(4), p.1325-1352.
- Shihadeh, E. S., & Maume, M. O. (1997). Segregation and Crime The Relationship between Black Centralization and Urban Black Homicide. *Homicide Studies*, 1(3), p.254-280.
- Siegel, L. J. (2008). 범죄학 (이민식, 역). 서울: 세계이지러닝코리아. (원서출판 2006).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urhoo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Verdier, T. & Zenou, Y. (2004). Racial Beliefs, Location, and the Causes of Crime.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45(3), p.731-760.
- White, M. J. (1983). The measurement of spatial segreg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5), p.1008-1018.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son, W. J. (1991). Studying inner-city social dislocations: The challenge of public agenda research: 1990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1), p.1-14.
- Wong, D. (1993). Spatial Indices of segregation, *Urban Studies*, 30(3), p.559-572.
- Wong, D. W. (2005). Formulating a general spatial segregation measure. *The Professional Geographer*, 57(2), p.285-294.

[부록 1]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D	student	profes- l	marry	worker	poor	transfer	popula- n	male	crimer~d	budget
D	1.0000										
student	-0.1071	1.0000									
professional	-0.1664	0.0529	1.0000								
marry	-0.4039	-0.1645	0.0053	1.0000							
worker	0.3625	-0.5499	-0.6380	-0.3482	1.0000						
poor	-0.0483	0.0355	0.0515	0.1292	-0.0842	1.0000					
transfer	0.0937	-0.1255	0.0945	-0.1840	0.0723	-0.0764	1.0000				
population	0.4975	0.1113	-0.2231	-0.6829	0.2995	-0.1956	0.1144	1.0000			
male	0.1688	-0.2467	-0.2686	-0.3583	0.6237	0.0286	0.0684	0.0819	1.0000		
crimerate_d	0.1112	0.1483	0.2074	-0.2127	-0.1825	0.2191	0.0391	0.1088	-0.3045	1.0000	
budget	0.1333	0.1686	0.1893	-0.1917	-0.2422	0.0242	-0.0865	0.2949	-0.2361	0.2545	1.0000

[부록 2] 회귀분석결과

2. model 2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Panels: heteroskedastic

Correlation: no autocorrelation

Estimated covariances = 60 Number of obs = 240
 Estimated autocorrelations = 0 Number of groups = 60
 Estimated coefficients = 12 Time periods = 4
 Wald chi2(11) = 451.12
 Prob > chi2 = 0.0000

crim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D	-.0022148	.0013747	-1.61	0.107	-.0049092 .0004796
student	-.0291326	.0029228	-9.97	0.000	-.0348611 -.023404
professional	.016542	.0049068	3.37	0.001	.0069248 .0261592
marry	-.0212764	.003959	-5.37	0.000	-.0290359 -.0135169
worker	-.0104501	.002258	-4.63	0.000	-.0148757 -.0060245
poor	-.0528098	.0203195	-2.60	0.009	-.0926353 -.0129842
transfer	.0001434	.0011341	0.13	0.899	-.0020794 .0023662
population	.0003631	.0002649	1.37	0.170	-.0001561 .0008822
male	.0020104	.0013575	1.48	0.139	-.0006503 .0046711
crimrate_d	.4348968	.0447804	9.71	0.000	.3471288 .5226647
budget	.0003424	.0001424	2.41	0.016	.0000634 .0006214
_cons	.0129656	.0036496	3.55	0.000	.0058126 .0201186

[부록 2] 회귀분석결과

3. model 3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Panels: heteroskedastic

Correlation: no autocorrelation

Estimated covariances	=	60	Number of obs	=	300
Estimated autocorrelations	=	0	Number of groups	=	60
Estimated coefficients	=	10	Time periods	=	5
			wald chi2(9)	=	359.03
			Prob > chi2	=	0.0000

crim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D	.0599092	.0195984	3.06	0.002	.0214971 .0983214
student	-.0143472	.0107335	-1.34	0.181	-.0353845 .0066901
professional	.0301804	.0177461	1.70	0.089	-.0046013 .064962
marry	-.0040246	.0119273	-0.34	0.736	-.0274017 .0193525
worker	.0007634	.0078957	0.10	0.923	-.014712 .0162387
interact1	-.0684576	.0306494	-2.23	0.026	-.1285294 -.0083859
interact2	-.0872175	.0483981	-1.80	0.072	-.182076 .007641
interact3	-.1105509	.0325171	-3.40	0.001	-.1742832 -.0468186
interact4	-.0596589	.020604	-2.90	0.004	-.1000419 -.0192758
_cons	.0092108	.0075558	1.22	0.223	-.0055984 .02402

[부록 2] 회귀분석결과

4. model 4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Panels: heteroskedastic

Correlation: no autocorrelation

Estimated covariances	=	60	Number of obs	=	300
Estimated autocorrelations	=	0	Number of groups	=	60
Estimated coefficients	=	15	Time periods	=	5
			wald chi2(14)	=	446.88
			Prob > chi2	=	0.0000

crim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D	.0356372	.0196215	1.82	0.069	-.0028202 .0740947
student	-.0095691	.0109027	-0.88	0.380	-.030938 .0117999
professional	.0432899	.0169935	2.55	0.011	.0099833 .0765965
marry	.0034969	.0117504	0.30	0.766	-.0195334 .0265272
worker	.003355	.0076004	0.44	0.659	-.0115415 .0182515
interact1	-.0468278	.0313527	-1.49	0.135	-.1082779 .0146224
interact2	-.0845823	.0470026	-1.80	0.072	-.1767057 .0075412
interact3	-.0500869	.0333703	-1.50	0.133	-.1154915 .0153177
interact4	-.0399608	.0201286	-1.99	0.047	-.0794122 -.0005094
poor	-.0817245	.0196077	-4.17	0.000	-.1201549 -.0432941
transfer	-.0025569	.0013228	-1.93	0.053	-.0051494 .0000357
population	.0009798	.000259	3.78	0.000	.0004721 .0014874
male	.0020818	.0013891	1.50	0.134	-.0006408 .0048044
crime_rate_d	.4337856	.0410458	10.57	0.000	.3533374 .5142338
_cons	-.0057562	.0075476	-0.76	0.446	-.0205492 .0090367

[부록 2] 회귀분석결과

5. model 5

Coefficients: generalized least squares					
Panels: heteroskedastic					
Correlation: no autocorrelation					
Estimated covariances =	60	Number of obs =	240		
Estimated autocorrelations =	0	Number of groups =	60		
Estimated coefficients =	16	Time periods =	4		
		wald chi2(15)	424.52		
		Prob > chi2	0.0000		

crime	Coef.	Std. Err.	z	P> z	[95% Conf. Interval]
D	.0393986	.0203874	1.93	0.053	-.00056 .0793572
student	-.0034538	.011836	-0.29	0.770	-.026652 .0197444
professional	.0217813	.0165463	1.32	0.188	-.0106489 .0542115
marry	-.0037234	.0120514	-0.31	0.757	-.0273437 .019897
worker	.0040661	.0075994	0.54	0.593	-.0108284 .0189607
interact1	-.0791804	.0353593	-2.24	0.025	-.1484833 -.0098774
interact2	-.0191397	.0467468	-0.41	0.682	-.1107617 .0724822
interact3	-.0574997	.0347612	-1.65	0.098	-.1256304 .0106309
interact4	-.0447724	.0206877	-2.16	0.030	-.0853195 -.0042253
poor	-.0602716	.0235765	-2.56	0.011	-.1064807 -.0140626
transfer	.0001459	.0011534	0.13	0.899	-.0021147 .0024065
population	.0003483	.0002944	1.18	0.237	-.0002288 .0009254
male	.0013155	.0014615	0.90	0.368	-.0015491 .00418
crimrate_d	.4004645	.0476478	8.40	0.000	.3070766 .4938524
budget	.0002597	.0001784	1.46	0.145	-.0000899 .0006093
_cons	.0005537	.0079081	0.07	0.944	-.0149458 .0160532

Abstract

Segregation Effects on Foreigner crime rate

Kim, Su Y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increase, the need for a solution to this has also increased. Nevertheless, most studies conducted in Korea have still described the current policy or status of foreign crime so empirical analysis for this i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that segregation of foreigners who reside within the Korea impacts on the crime rate of foreigners, thereby contributing to policy implications for reducing foreigner crime rate.

There are various causes of foreign crime, in which the Chicago school focused on racial/ethnic community structure. They assumed that segregation caused crimes and delinquency by racial/ethnic minorities. Segregation appears when residential distribution between groups is different. Especially, more one group is isolated

from the other group, degree of the segregation rises. Segregation is a pervasive aspect of residential preference but also exclusive attitude of majorities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in the society. As a result, the spatial discrimination leads to hierarchical discrimination to restrict the movement of the vertical layer. The overlapped discrimination, location and hierarchy, enforces the group to committee crimes by increasing strain of the group in that discrimination. Furthermore, isolation of the group leads the concentration of inequality so crime rate of the group considerably increases. The Chicago School started research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rate and black segregation on the basis of this point of view, extending scope of study on Non-white like Latin and Hispanic.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rime rate and the segregation of a particular population is positive.

This study examines how segregation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effects on the crime rate of foreigners by using the analysis method of the Chicago School. Among a variety of factors from past foreigner crime studies, this study selects these variables; segregation index of foreigners, the poverty rate, population rate of youth male foreigners, the number of foreigners, the frequency of crime in the region and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for foreign residents.

Seeking to correlation between segregation and foreigner crime rate, this study performs regression analysis through census data and criminal statistics of si, gun, gu within Seoul metropolitan area(Seoul, Incheon, Gyeonggi-do) from 2008 to 2012. In addition

to this analysis, another analysis of moderator effects is performed to find how the social bond affects the correlation between segregation and foreigner crime rat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the correlation between segregation and foreigner crime rate is positive and moderator effect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gregation and foreigner crime rate are negativ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hicago-theory on crime can be applied yet in Korea and social bond among foreigners residing within Korea should be increased by policies to prevent foreigners from committing crimes in advance.

Keywords : Segregation, Foreigner crime rate

Student Number : 2011-22122